

# 인 불가촉천민 생명줄

## 작년 1만6천회 진료... 하루 환자 53명꼴 전문의료진 빈약... 시설·장비 가동 어려움

### JTS, 비하르주 중심 기아·질병퇴치 앞장

부처님께서 전도기간의 상당기간을 보낸 인도 비하르 주. 최근 이곳에서 부처님께서 뿌린 전법의 싹을 큰 나무로 키워내고 있는 NGO가 있다. 바로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범문스님)다.

1991년 정토회 지도법사 범문스님의 서원으로 시작된 이 NGO는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의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업장은 인도 비하르주 보드가야 근교 동게스와리 지역에 있는 수자타아카데미와

지바카병원이다.

이중 JTS와 인도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곳은 '지바카 병원'이다. 지난 한해의 진료횟수만 15,688회에 주위 80여개 마을에서 하루 평균 53명의 환자들이 다녀갔다. 작년 10월부터는 환자등록사업을 시작하였는데 7개월이 지난 금년 5월 현재 등록환자가 2,000여명을 넘어가고 있다. 기초의료시설이 없는 오지에서 지바카병원은 지역민들의 건강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지바카 병원



○JTS 이사장 범문스님(왼쪽)이 몸이 불편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목발을 선물해 걷기연습을 시키고 있다.

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로서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 발병의 위험이 높다.

지바카병원이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는 5월 현재 36명, 연내 100명의 환자를 관리할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02년 인도 JTS의 주요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지바카 병원의 도움으로

동게스와리 주변 16개 천민 마을의 의료체계 건설의 첫 단계로 마울벌 보건요원(Health Teacher)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현관 JTS(www.jts.or.kr)는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인도체험 봉사활동인 제4차 JTS 국제워크캠프를 연다. 문의=02587-8756

인도 보드가야=김동훈 통신원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7. '6·25' 4일째 큰스님 네분

6·25발발 53주년을 맞이한다. 참혹한 동족상잔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그 처참하고 무모한 비극성으로해서 영원히 아픈 지 않을 한국근대사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6·25. 그때 우리의 큰스님들은 그 기나긴 비극과 고통의 나날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여기에 한 스님이 기록한 6·25 발발 최초 4일째 되는 날, 지금의 강남 봉은사에서 이동공, 근래의 선지식이었던 이춘성, 수덕사의 조실이었던 최해암, 양산 천선산 내원사를 중건하신 이수옥 비구니 스님 등 4명의 스님이 겪은 이야기가 있다.

동광스님은 51세되는 1950년 음력 5월5일(단오)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우산 청우사의 불사 초창을 받아 갔다가 5월 11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파주군 아동포교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평에서 6·25발발 소식을 듣는다. 즉청평에 당도하니 '어제 새벽 6·25, 음력 5월10일에 이북 괴뢰군이 가평읍에서 5리되는 곳까지 월남해 들어와서 작전중이다'라는 것이다. 동광스님은 서울방면으로 향하는 피난민들

스님은 <한글 관음경 영험록(1968)>과 자신의 체험을 정리한 <동광영험록>이라는 문건이 있을 정도이다.

해암, 춘성, 동광 세 스님이 객사로 돌아가서 관세음보살만을 일심으로 속으로 부르고 누워있는데 동광스님의 뇌리에 비몽사몽간에 누가 '춘성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방으로 가거라'라는 말이 들렸다. 동광스님은 '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뒷방으로 가라는가?'라고 의문이 일어났지만 곧 '알망과 뒷방 사이에 큰 기둥이 서 있으니 그것이 의지가 될 것이니 곧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곧 옮겨왔다.

춘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방안에 있던 스님들은 춘성스님에게 '스님도 어서 없드리시오'하고 권해도 스님은 정좌불과(坐不臥)하는 모양인지 그대로 앉아 계셨다. 바로 방 앞에서 '따닥따닥'하는 춘소리가 춘소리가 크게 두번 나자 귀먹은 해암스님이 놀라면서 '이크'하면서 일어나시고 춘성스님도 '이크'하면서 옆으로 몸을 숙였다.

그때 비구니스님들이 머물고 있는 열방에서 한 비구니스님이 소리를 높여서 북한군을 향하여 말했다. '아무일 없이 수도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총질을 합니까?' 북한군의 총부리 앞에서 할 말을 하는 비구니스님의 용기있는 행동과 기백에 찬 말을 들은 춘성스님은 아예 방문을 열어두고 좌선을 하고 있다 가 마루에 나가서 동광스님과 해암스님도 따라나서서 서서 있으니 북한군 지휘관은 스님들이 있던 방 열어보고 아무도 없으니가 또 다시 물었다. '이 절에 국방군이 없는가?' '한사람도 없소'라고 스님들이 대답하자 지휘관은 총이 있는 군인들을 향하여 '사격중지'하고 명령하여 멀리있는 군인들은 아직도 못듣고 여전히 사격하고 있으니 대장이 또 다시 말하되 '사격중지, 썩너러 자식들'하고 큰 소리를 지르니 그때서야 사격을 중지하고 '들어, 앞으로 갔'하니 군인들이 떠나가 버렸다.

이 글을 마치며 나는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도 정좌불과를 하던 춘성스님과 그 사육의 와중에서도 총질을 하던 군인들에게 호명을 친 비구니스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이들이 6·25발발 초기에 보여준 연행에는 수도자의 의연하고 굳건한 삶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훗날 종단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권경학회 회주

## 북한군 총구 앞에서

## 의연히 염불·장좌불과

의인신해를 따라서 트럭을 얻어 타고도 하고 걸기도 하며 근근히 서울안 국동 선학원까지 올 수 있었다.

6월 27일 들려오는 춘소리에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선학원의 스님들이 새벽에 비로소 선학원 문밖에 나가서 알아보니 북한군들이 벌써 시내 각처에 들어와서 요소마다 점령하고 있고 인심은 극도로 흉악해졌다.

6월 28일 동광스님은 이춘성스님과 함께 선학원을 떠나 파주군 봉은사 견성암(지금의 강남 봉은사, 당시 견성암은 비구니 선방으로 건너가서 최해암스님과 이수옥 비구니 스님들과 만나서 합류하여 피난한다. 당시 봉은사는 북한군이 점령한 강북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스님들의 제1집결지였던 것이다.

6월 29일(음력5월 15일) 저녁예불을 하고나자 춘소리는 더욱 다급하고 가깝게 들리기 시작했다. 위기를 느낀 동광스님은 대중스님들에게 '자, 일이 이같이 다급해졌으니 별도로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이나 지극히 부름시다'라고 권했다. 동광

## 16국 시대 도안법사 석조상 발견

### 중국 섬서성서, 높이 17m 漢나라 복장

중국 섬서성 호현(戶縣)에서 고대 16국시대(316-439)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안(鎊安, 312-385) 법사 석조상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의 고증에 따르면 소조상은 대륙에서 유일한 것이자, 가장 오래된 도안법사 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조상은 서안에서 약 10km 떨어진 호현 대왕진(大王鎭) 착지촌(墾地村) 북쪽 보살묘(菩薩廟)에서 나왔다. 석조상은 청색석 석영암질에 높이가 17m, 가슴 둘레가 90m, 漢(漢) 나라 복장을 하고 있다.

섬서성 호현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석도안 스님의 속성은 위씨, 상산(常山) 부류인(扶柳人)으로 되어 있다. 중국불교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안 법사는 365년 <증경목록(僧經目錄)>을 편찬하고, 스님들의 성씨인 '석(釋)'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 379년 장안에서 전진(前秦)의 국가영경장원의 주지를 맡아 100만언(言)을 역경, 중국 역사상 저명한 역경대사가 되었다.



◇당나라 숙종 황제가 하사한 김지장스님 금인.

## '김교각 스님 지장보살金印' 공개

법력을 존중해 하사한 것. 월간 <선(禪) 문화> 최석환 사장은 금인을 보관중인 중국 안휘성(安徽省) 무호(無湖)시를 방문, 시당국자의 입회 아래 무호시정부의 1급 유물인 금인을 확인, 사진과 관련기사를 6월 11일 발간

금인(地藏利成金印)이라는 여섯자가 전서로 새겨져 있다. 특히 금인의 받침부에는 '당지덕 2년'이라고 새겨져 있어 금인의 하사 시점이 김교각 스님의 생전(生時) 37년 전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 唐 숙종이 하사... 금과 옥으로 조성(4.5kg)

스님 얼굴조각·머리에 뿔... 史料 모습과 닮아

월간 <선(禪) 문화> 6월호에 실었다. <선(禪) 문화>에 따르면 당 숙종이 하사한 금인은 가로, 세로 각 12cm 정방형으로 무게는 7근반(4.5kg)에 달하며 금과 옥으로 조성됐다. 금인의 등쪽에는 사자를 예위한 구룡(九龍)이 조각돼 있으며 바닥 등에는 '지장이상' 또는 스님의 얼굴이 조각된 금인의 머리부위에 뿔이 솟아 있어 중국 사료가 전하는 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당시 인물이란 비관경(費冠卿)은 <구화산 창건 화성사기(化城寺記)>에 '머리에 뿔이 북쪽 솟아났다'고 스님을 묘사하고 있다.

##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

### 태 방콕서 200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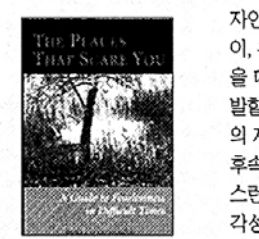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가 12-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와 기타 종파 등 각국의 종교지도자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종교 지도자 회의는 평화 증진, 빈곤 퇴치,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국불교대학과 밀레니엄 세계 평화 정상회의(The Millennium World Peace Summit) 주최로 열린 이번

이런 종교 지도자 회의는 2년 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2000여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교지도자 회의에서 세계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 종교 지도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데 따라 열리게 된 것.

세계 종교 지도자 위원회는 앞으로 방콕에 사무국을 두고 유엔 및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평화증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 해의 불서



당신을 놀라게 하는 곳들-힘들 때 두려움 없애기: <The Places That Scare You-Guide to Fearlessness in Difficult Times>는 미국의 여성 수행자인 페마 초드론(Pema Chodron)이,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비심과 깨어있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비밀을 일러준다. 그녀의 저서 <When Things Fall Apart>의 후속편으로 나온 이 책은 고통스런 경험 가운데, 오히려 정신적인 각성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그녀는 불안, 불확실성,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의 근원적인 선량함을 일깨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친절함, 자비심, 즐거움, 평정심을 기를 것 △나와 타인의 실수와 결함을 받아들이는 것 △고통스런 삶을 이끄는 자아의 저서 <When Things Fall Apart>의 후속편으로 나온 이 책은 고통스런 경험 가운데, 오히려 정신적인 각성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보여준다.

다. 이 책에서 그녀는 불안, 불확실성,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의 근원적인 선량함을 일깨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친절함, 자비심, 즐거움, 평정심을 기를 것 △나와 타인의 실수와 결함을 받아들이는 것 △고통스런 삶을 이끄는 자아의 저서 <When Things Fall Apart>의 후속편으로 나온 이 책은 고통스런 경험 가운데, 오히려 정신적인 각성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보여준다.

Shambhala Publication 출판.

해의불교 담당=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책으로 선물합시다

서울·미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www.bumwoosa.co.kr 국민·BC카드 도서구매 가능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 종합 출판 범우사

국내외 문제작에 대한 초유의 거꾸로 책읽기 - 완전무삭제 수록!

오늘날 누가 얼굴을 똑바로 하고 자기 자신을 패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단어가 가진 가장 엄밀한 의미를 쫓는, 패러주의자가 되고 싶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작가 장정일이 예리한 비평의 메스를 가한다!

### 장정일의 독서일기5

\* 신국판 | 320면 | 값 9,000원 ◆ 전국서점 판매중

\* 한 권의 책으로 200여 권을 읽는다!

● '아웃사이더' 장정일이 지난 3년간 그가 읽은 책 200여권에 대한 단편을 담은 <독서일기5>를 들고 돌아왔다. 장씨는 말한다. "지금 작가가 된 뒤 행복을 느낀다면 <독서일기>를 낼 수 있어서다. 환갑 때까지 한 30년 낼 수 있었으면!" 하고.

—조신일보(2002. 1. 21)

● 문단의 '양광 테리블'로 불리는 장정일씨가 3년에 만에 책을 내놓았다. 개별 책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분방한 사유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도 익히 보지 못한 것이라 책상같은 서점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을 작가와 공유할 수 있다.

—동아일보(2002. 1. 21)

## 나의 아버지 모택동

모택동과 등소평을 알아야 중국을 안다!

중국 산시성 톈촨의 동북에서, 모택동과 허쩌전 사이에서 태어난 딸 리민. 20여 년 동안 마오 주석의 충을 받으며 성장한 리민은 그녀가 아버지 모택동의 삶과 가족사들 장편소설로 2001년 10월 최후의 베스트셀러!

www.bumwoosa.com (02) 717-2121

무소유 114만부 돌파!

##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김수환 추기경

이번 '무소유' 35쇄 판매금 전액(30,000,000원)을 범우출판장학금에 출연(出捐)합니다!

(범우 출판장학금은 중국의 출판학계 관련 전공자들에게 11년째 지급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3억 4천만원 중 1억 4천만원이 기 지급되었습니다.)

### 무소유

법정 지음

\* 4×6변형판 | 양장본 | 값 6,000원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성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배어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들었다. - 윤구병, 변산공공체 대표

침보공덕이 못미치는 지혜, 법정 스님의 명언을 빌어 설파되는 무소유 지혜! - 도을 김용욱

## 범우문고

각권 2,800원

제21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수백만 독자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해 온 범우문고가 표지 장정과 편집을 새롭게 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독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범우문고'가 될 것입니다.

|                  |              |                 |            |         |
|------------------|--------------|-----------------|------------|---------|
| 005 오, 고독이여      | 니체/지혜문       | 117 실천론         | 모소문(외)     | 모택동/김승일 |
| 013 무진기행         | 김소유 지음       | 139 푸슈킨 산문 소설집  | A 푸슈킨/김영국  |         |
| 015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 추기경 지음/김지혜   | 143 에머슨 수상록     | 에머슨/왕성하    |         |
| 027 노자도덕경        | 노자/황영국       | 160 동물농장        | G 오웰/김희진   |         |
| 035 로렌스의 성과 사랑   | D.H. 로렌스/이성호 | 161 신부 예찬       | 이영하 지음     |         |
| 04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톨스토이/김진욱     | 167 귀여운 여인(외)   | A 체코프/박정원  |         |
| 053 박재삼 시집       | 박재삼 지음       | 168 아리스토텔레스 희곡선 | 아리스토텔레스/박진 |         |
| 060 별·마지막 수업     | 일론스 도에/정봉우   | 169 세네카 회곡선     | 세네카/최현     |         |
| 080 문주반생기        | 한유 지음        | 170 테렌티우스 희곡선   | 테렌티우스/박진   |         |
| 101 인간만사 새우지마    | 리명백 지음       | 171 외투          | 코 코리올/김영국  |         |
| 105 찰스 램 수필선     | 램스 램/정봉우     | 172 카르멘         | 비레키/김진욱    |         |
| 106 구도자          | 고은 지음        | 173 방법서설        | 데카르트/김진욱   |         |
| 116 복덕방          | 이재운 지음       |                 |            |         |